

브라질, 산토스 천연가스 유전 발견

Petrobras, 하루평균 3300만^m³ 생산 ... 볼리비아 의존도 대폭 낮출 듯

브라질의 대서양 연안 산토스만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 사실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산토스만이 자원의 보고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국영 에너지기업인 Petrobras는 1월21일 리우데 자네이루 해안에서 290km 가량 떨어진 산토스만 심해유전에서 막대한 매장량을 가진 대형 천연가스 유전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에디손 로방 신임 브라질 에너지부 장관은 “정확한 매장량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산토스만 유전 발견으로 브라질의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주피터>로 이름 붙여진 유전에서 최소한 하루평균 3300만^m³의 천연가스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하고 있다. 브라질이 현재 볼리비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2600만-3200만^m³과 맞먹는 수준으로, 유전개발이 본격화되면 볼리비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피터> 유전개발 지분은 Petrobras가 80%, 포르투갈 에너지기업인 Galp Energia가 20%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양사는 2008년 말경부터 천연가스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피터> 유전은 2007년 11월 발견된 투피(Tupi) 심해유전으로부터 37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투피 유전의 석유 매장량은 50억-80억배럴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 유가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250억-600억달러에 달하는 규모이다. 카자흐스탄의 카샤간 유전에 이어 최근 20년 사이 발견된 유전 가운데 가장 큰 매장량으로 평가되고 있다.

브라질은 투피 유전 발견으로 전체 석유 매장량이 현재의 144억배럴에서 200억배럴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영국 및 포르투갈 석유기업과의 협조를 통해 2008년 석유 시험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말 현재 브라질의 하루평균 석유 생산량은 180만배럴 수준이며, 2007년 12월 말 한 때는 사상 최초로 하루 생산량 200만배럴을 돌파하기도 했다.

Petrobras는 산토스만 일대 해저유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석유 매장량이 465억배럴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크레디 스위스는 2007년 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산토스만 심해유전의 석유 매장량이 최대 1000억배럴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브라질 정부와 Petrobras를 들뜨게 만들기도 했다. 산토스만에서는 현재 추가로 신규 유전을 발견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투피 유전 발견으로 석유수출국기구(OPEC) 가입 추진을 시사한 데 이어 <주피터> 유전 개발을 통해 천연가스 자급자족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1/23>